SUSTINVEST X GLIDE · 퇴직연금 ESG 워치

2026. 06. 22 | 6월 3주차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식 발표

교육은 끝났는데,
왜 노후는 그대로일까

법은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효과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연 1회 의무

모든 기업이 법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

19.5% vs 0.5%

수익률 상위 10% vs 하위 10% (DC·IRP)

2.42% vs 10.12%

최근 5년 평균 수익률 한국 vs 미국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5). 미국 비교는 백서 내 '19~'23년 5년 평균.

같은 본성, 다른 결과

수익을 좇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미국 직장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금감원 백서가 보여주듯,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미국

충동을 제도가 흡수한다

자동가입과 디폴트가 기본값이라, 대다수는 손댈 필요 없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행동의 진폭이 작습니다.

한국

충동이 양극단으로 터진다

장이 좋으면 우르르 직접 매매에 뛰어들고, 평소엔 그대로 방치합니다. 같은 본성이 더 크게, 더 거칠게 드러납니다.

정부 백서

정부 백서가 확인한, 평균 6.47% 뒤의 격차

6.47%

역대 최고를 찍은 지난해 연간 평균수익률

고용노동부·금감원 백서

절반은 2%대

상위 10%가 끌어올린 착시, 가입자 절반은 물가만 간신히 방어

고용노동부·금감원 백서

투자 84%

상위 10%의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
— 돈이 돈을 벌어온 구조

고용노동부·금감원 백서

예금 74%

하위 10%의 원리금보장형 비중
— 넣은 만큼만 쌓인 계좌

고용노동부·금감원 백서

정부 백서의 결론: 격차는 운용 실력이 아니라 '운용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교육이 문제다

의무라 거의 모든 기업이 교육을 마치는데 결과가 0에 가까운 이유는, 서명을 받기 위한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1

출석부와 영상

이름을 적고 영상을 틀어두면 법적 의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직원의 노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2

주제를 벗어난 교육

정작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빠진 채, 형식만 채우고 끝나는 교육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3

측정 없는 반복

내 직원들의 돈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모른 채, 내년에도 형식적인 교육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정부 백서가 보여준 격차를 줄이는 길 — **진짜 교육은 측정에서 시작됩니다.**

GLIDE

형식적 이수를 실제 변화로 바꿀 때입니다.
글라이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법정의무교육 — 퇴직연금 교육

글라이드는 고용노동부 인정 퇴직연금 교육기관으로,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형식적인 이수가 아닌 실제 운용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2 직원 퇴직연금 현황 진단

수익률 비교 · TDF 현황 · 원리금보장 비중 · 디폴트옵션 설정 여부를 회사가 먼저 파악하도록, 글라이드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진단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글라이드(한국퇴직연금데이터)는 TDF Index, 한국경제와 Best 퇴직연금사업자 어워즈를 운영합니다.
글라이드 플랫폼 에서 무료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

대표: 영주닐슨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3층 홈페이지: www.glide-path.org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PxmtDG